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 참된 행복의 길

예수님께서서는 산 위에서 “행복하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풍요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이, 슬퍼하는 이,  
 온유한 이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는 약함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초대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소유보다 관계를,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폭력 대신 사랑을 택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를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어 봅시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배려의 행동 하나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에 가까이 오게 합니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  
 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  
 쇠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  
 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  
 (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  
 (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  
 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1/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5,580

현재 참가 인원 -100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암브로시오

성 암브로시오(Ambrosius)는 갈리아(Gallia)의 지방 장관으로 재직하던 아우렐리우스의 아들로, 339년 독일 남서부 트리어(Trier)에서 태어났다. 밀라노의 성녀 마르첼리나(Marcellina, 7월 17일)와 성 사티로(Satyrus, 9월 17일)와는 형제 사이이다. 그는 부친이 사망한 후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로마(Roma)로 이주하여 인문 교육을 받아 수사학과 법학 외에 그리스어에도 능통하였다. 어머니가 선종한 후에는 만이인 성녀 마르첼리나의 돌봄을 받았다. 성 암브로시오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국가 관리의 길을 택해 뛰어난 실력과 좋은 가문을 배경으로 빠르게 출세하였다.

성 암브로시오가 밀라노의 집정관으로서 그 지방을 다스리던 때, 밀라노에는 서방 교회 아리우스주의(Arianism)의 대표자인 아욱센티우스(Auxentius)가 주교로 있었다. 아욱센티우스는 발렌티니아누스 1세 황제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파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밀라노의 주교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후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 교리를 따르는 신자들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집정관인 성 암브로시오는 밀라노의 질서 회복을 위해 이 문제에 개입하였다.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 교리를 따르는 신자들을 중재하면서 성 암브로시오는 성당에 모여 있던 신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를 통해 화해를 추구하자고 연설하였다. 이때 뜻밖에도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성 암브로시오가 주교로 선출되었고, 그는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성 암브로시오는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신자였다. 그래서 그는 니케아(Nicaea) 공의회 결정을 따르는 주교로부터 세례성사를 받은 뒤, 8일 후인 374년 12월 7일 주교품을 받았다. 주교직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훗날처럼 밀려드는 개종자들, 수많은 이교도와 아리우스 이단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 등 모든 문제를 새 주교인 성 암브로시오가 해결해야만 했다.

주교가 된 후 성 암브로시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희사하고, 수도자와 같이 청빈과 극기의 생활을 하면서 신학과 성경 등을 연구하였다. 그에게 신학을 가르쳐 준 사람은 훗날 그의 후계자가 된 성 심플리치아노(Simplicianus, 8월 15일) 신부였다. 성 암브로시오는 오래지 않아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고,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서방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390년 테살로니키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로마 총독을 살해하자, 그에 대한 징벌로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군인들에게 진압을 명령하였다. 이 때 군인들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7,000여 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성 암브로시오는 황제에게 범죄의 중대함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성 암브로시오는 참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공식 참회 행위로 보속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제는 이에 순순히 응하여 성탄 때 황제복 대신 참회복으로 갈아입고 통회하였다. 성 암브로시오는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에서 행동하였다. “황제는 교회 안에 있다. 그는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

393년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갈리아에서 아르보가스트(Arbogastes)에 의해 살해되고, 그들의 대표로 부상한 에우게니우스는 우상 숭배를 재건하려고 시도하였다. 성 암브로시오는 그들의 살인과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마침내 제국 내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 버렸다. 395년 1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심한 질병으로 밀라노에서 사망하자, 성 암브로시오가 그의 장례 때 기도하고 설교하였다. 그 후 2년 뒤인 397년 4월 4일 성 암브로시오도 밀라노에서 선종하였다. 고령의 성 심플리치아노 신부가 그를 계승하여 밀라노의 주교가 되었다. 성 암브로시오의 시신은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대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되어 공경을 받고 있다. 옛 『로마 순교록』이나 2001년 개정 발



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추가된 『로마 순교록』은 그가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 전날인 성토요일에 선종했지만, 그가 주교로 축성된 12월 7일에 전례적으로 축일을 기념한다고 기록하였다.

성 암브로시오는 초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로마 제국이 쇠퇴해가던 서방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인물이었다. 또한 세속의 권위에 대항하여 교회의 독립과 자주성을 옹호했던 탁월한 행정가이면서, 성경·교의 신학·신비 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설교를 통해 설파한 위대한 신학자였다. 그는 설교를 통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던 성 아우구스티노를 이끌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였으며, 387년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그는 『신비론』(De mysteriis)과 『성사론』(De sacramentis)에서 주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그는 시편을 대중적인 찬미의 기도로 활용하도록 가르친 첫 번째 인물이다. 그 밖에 그의 주요 저서로는 『성직자들의 직무론』(De Officiis Ministrorum), 『동정녀』(De Virginitate), 『신앙론』(De Fide) 등이 있다.

## 공지 사항

### 1 미사 안내

#### ①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2/7(토) 오전 10시 미사

#### ② 설(구정)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2/15(주일) 오전 10시 미사

(당일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신청은 2/8(주일)  
까지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2/18) '재의 예식'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가  
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15(주일)까  
지 성당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3 교무금 납입 증명서 발급

2025년도 교무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교우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가족등록서에  
등록된 이메일로 2월 초 기간에 세금 보고 서류  
를 보내드립니다.

### 4 울뜨레아 월례 모임

- 일시 : 2/7(토) 오전 11시
  - 장소 : 101호 교리실
- 울뜨레아 2월 월례 모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2/1(주일)
- 음식 봉사 : 복사단 학부모회
- 메뉴 : 비빔밥+미소 된장국

- 일시 : 2/8(주일) 교중미사 후

- 음식 봉사 : Mukilteo 구역

- 메뉴 : 우거지 배추국

2/8(주일)은 구역의 날입니다. 각 구역원들은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6 구역장 회의

- 일시 : 2/8(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특별 헌금(Prepares Collection)

- 일시 : 2/7(토)-2/8(주일)

Prepares Collection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가정과 새로운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사목활동  
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 8 글로리 성가대원 모집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자들이 하나  
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분.

- 대 상 : 모든 신자

- 연락처 : 장 릴리안 206-719-2063  
오 마리아 425-876-8593

### 9 청년회 2026 사순피정

- 일시 : 3/20(금)-3/22(주일)
- 장소 :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 : 청년

- 참가비 : 학생 \$60, 직장인 \$80

- 신청 마감 : 3/1(주일)까지

- 문의 : 청년회장 김스텔라  
425-368-8814



### 10 봄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

#### ① 축복받은 성경 읽기

- 대상 :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복음반

주 1회 부담 없이 모여 성경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 ②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대상 : 각 전 단계 공부를 마친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임 시작 : 그룹별로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신청 기한 : 2/20(금)까지

- 담당 : 교육분과장 최정필 미카엘

###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  
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스바 2,3; 3,12-13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

### 화답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2독서** ..... 1 코린1,26-31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5,1-12L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  
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연중 제3주일(1/2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1명	62명	259명	144명	38명	544명

###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38    예물 준비 성가 : 220, 332    성체 성가 : 175, 174    파견 성가 : 6





## 2026년 축성 생활의 날 담화

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례를 치르고,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심으로써,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축성 생활자들을 교회가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모든 남녀 축성 생활자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를 지냈습니다. 교회의 정기 회년이었을 뿐 아니라, 보편 교회 차원에서 축성 생활의 해를 지낸 지 꼭 10년이 되는 시점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축성 생활의 의미와 사명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16차 세계 시노드의 3년 여정을 마무리하며, 시노드 정신을 실제 삶과 활동 안에서 구현해야 할 교회의 과제가 분명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성’이라는 개념, 곧 세례의 축성에 뿌리를 둔 평신도와 성직자, 그리고 축성 생활자가 고유하면서도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이해는, 시노드적 교회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사목적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축성 생활의 날을 맞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봉헌되시며 아버지 앞에, 그리고 모든 하느님 백성 앞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 안에서, 축성 생활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차분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3차 세계 대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폭력과 분열, 불안이 확산되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

하시며, 희망이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의 온기가 식어가는 듯한 이 시대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언하는 이들이 되어 달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특히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적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시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부터 평화를 지니십시오. 평화 안에서 굳건해지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불꽃을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지녀야만 합니다.”

“여러분부터 평화를 지니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향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열도록 초대합니다. 교황께서는 이어,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이자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의 표징으로서, 하느님께서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젊은 마리아님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무방비 상태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복음 역시, 부모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채 성전에서 봉헌되심으로써,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적 겸손과 평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강생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평화를 위한 자기 인식과 책임 있는 연대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 오래가고 무엇이 덧없이 지나가는지, 무엇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죽음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더 명료하게 깨우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까닭에 우리에게서는 흔히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선택한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부정하거나 감추어야 할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다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은총의 자리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취약함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를 경쟁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축성 생활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취약함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경청과 연대, 그리고 참된 친교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처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야말로, 오늘의 교회와 세상 안에서 축성 생활자가 평화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축성 생활자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 또한 보다 성숙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회년도,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평화와 희망의 순례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축성 생활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쉽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하기에 축성 생활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소명의 충실함과 삶의 진정성은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순례 여정 안에서,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안에 살아 있는 관계와 연대를 형성하는 데에 맡겨진 축성 생활자 여러분의 현존과 봉사가 새롭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헌신과 침묵의 기도, 그리고 일상의 충실함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당신 평화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2026년 2월 2일 축성 생활의 날에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 협의회 회장  
백남일 요셉 신부